

## 원효(元曉)

— 화해의 등불을 밝힌 만인의 스승 —

김 상 현

- |            |                 |
|------------|-----------------|
| 1. 원효라는 인물 | 4. 원효의 사상       |
| 2. 학문과 저술  | 5. 불교사에 미친 영향   |
| 3. 대중교화    | 6. 원효사상의 현대적 의의 |

### 1. 원효라는 인물

원효(617~686)는 삼국간의 전쟁과 통일이 있었던 격변의 7세기에 살았다. 경산에서 태어나 15세경에 출가하여 수행과 교학(敎學)에 매진하는 젊은 시절을 보냈고, 40세 전후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 무렵 그는 요석공주를 만나 설총(薛聰)을 얻고 환속하여 소성거사(小性居士)로 자처했다. 그리고 가무(歌舞)로 천촌만락(千村萬落)을 누비며 대중을 교화했고, 밤을 지새우며 연구에 몰두하기도 했다. 그는 686년(신문왕 6)에 70 생애를 혈사(穴寺)에서 마감했다.

원효는 어떤 인물인가? 그의 모습은 다양하고, 그의 삶의 폭은 깊고도 넓어서 간단히 규정하기 쉽지 않다. 그는 승려이면서 거사(居士)였고,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대중의 스승이기도 했다. 그에게는 일정한 범주가 없

필자 : 金相鉉, 동국대 사학과 교수.

저서로는 『新羅華嚴思想研究』(민족사, 1991), 『역사로 읽는 원효』(高麗院, 1994), 『한국불교사 산책』(우리출판사, 1995), 『한국의 茶詩』(민족사, 1997), 『新羅의 思想과 文化』(일지사, 1999), 『元曉研究』(민족사, 2000) 등이 있고, 그 밖에 한국고대불교사에 관한 논문이 많이 있다.

고, 어떤 굴레도 구애도 없었다. 그는 걸림이 없는 자유인이었다.

그의 발언은 미친 듯 난폭하고 예의에 어긋났으며, 행동은 상식의 선을 넘었다. 그는 거사와 함께 주막이나 기생집에도 들어가고 『화엄경』을 강의하기도 하고, 혹은 사당에서 거문고를 타면서 즐기고, 혹은 여염집에서 유숙하기도 하고, 혹은 산수에서 좌선하는 등 계기를 따라 마음대로 하는데 일정한 규범이 없었다.

이상은 『송고승전』이 전하는 원효의 자유로운 모습이다. 이처럼 원효는 자유로운 무애도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천재성만으로 원효를 미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의 노력은 100종에 가까운 그의 저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잡보장경』의 이 구절은 원효에게 적용해도 좋을 것 같다. 원효는 높이 나는 봉황새의 기상을 갖고서도 산기슭에 사는 작은 새의 행복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백 개의 서까래 아닌 하나의 대들보임을 자부하고, 하늘 떠받칠 기둥으로 자처할 정도로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교만의 콧대를 스스로 꺾을 줄 알았기에 소성거사의 모습을 하고서 낮은 곳으로 임했다. 그는 거침없는 비판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줄 아는 이였다. 그는 화쟁(和諍)을 주장했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비판자였다. 그렇다고 그는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무퇴한은 아니었다. 그는 『대승육정참회(大乘六情懺悔)』를 통해서 엿볼 수 있듯이 스스로의 허물과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참회할 줄 알았던 수행자이다.

## 2. 학문과 저술

원효의 다양한 면모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가 뛰어난 학승이었다는 사실이다. 비문에는 “그가 일체의 도리를 모두 다 통달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은밀하고 미묘한 이치를 연구하고 분석했다”고 했다. 그리고 『송고승전』의 저자 찬녕(贊寧)은 학승으로서의 원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기도 했다.

원효는 진리의 성을 용감하게 공격하고, 문진(文陣)에서 종횡무진 당당히 분투해서 나아갈 뿐 물러서는 일이 없었다. 삼학(三學)에 두루 통하여 그 나라에서는 만인지적(萬人之敵)이라고 했다. 도리에 정통하고 입신(入神)의 경지에 도달함이 이와 같았다.

혼자서 수많은 적군과 대항할 만한 지혜와 용기를 갖춘 장수에 학승으로서의 원효를 비견하고 있음은 흥미로운 일이다. 의천(義天)은 “원효성사 오른쪽에 가는 선철(先哲)은 없다”고 하면서, “오직 용수(龍樹)와 마명(馬鳴)만이 원효에 짝할 수 있다”고 했다. 원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 원효의 학문과 사상은 한국불교사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사에도 여전히 우뚝 솟은 봉우리가기 때문이다.

원효의 교학은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의 저술에는 많은 인생의 경험이 녹아 있다. 그의 학문이 현학적으로나 훈고학적으로 기울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고, 간략하고 명쾌한 문장 속에 풍부한 의미를 담으려던 노력이 보이는 것도 이 까닭이다. 그의 학문은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그는 “교문(敎門)이나 계율에 제약받지 않고 능히 자신의 마음으로써 도리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교문에 제약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공이나 종파에 따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학문은 남의 주장에 맹종해도, 자신의 선입관에 빠져도, 언어의 그물에 걸려도 안 된다. 원효는 『기신론』을 해석한 이가 많지만, 저자의 본뜻에 접근한 경우는 적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자기 자신이 익힌 것만을 지키거나 문장에 이끌려, 능히 허심탄회하게 그 논지를 탐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허심탄회한 입장에 설 때, 긍정과 부정, 수용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하여 원효는 말했다. “긍정과 부정에 구애받지 않아서, 긍정해도 얻는 것이 없고, 부정해도 잃을 것이 없다. 그리고 이는 곧 마명의 묘술이다”라고. 이 묘술은 마명만의 것이 아니라 원효도 이미 체득했던 것이다. 그는 비판자이면서도 화쟁의 대가였기 때문이다.

원효는 타인의 주장이나 견해를 받아들일 줄 알았다. 의상에게 화엄교학에 대한 의문을 묻거나 수전법(數錢法)을 배웠던 예, 불교의 신학풍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점 등으로 볼 때 그렇다. 그러나 그는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천태(天台)의 교판(敎判)을 “술잔으로 바닷물을 잔질하고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고, 현장이 세운 유식무경비량(唯識無境比量)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노력하고도 아무런 공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아전인수 격으로 『기신론』을 해석해 온 이들에 대해서, “혹은 원천을 바라보면서도 하류에서 방황하고, 혹은 잃은 잡았으나 즐기는 망치고, 혹은 소매를 길기 위해서 옷깃을 자르며, 혹은 가지를 잘라서 뿌리를 감는 격〔或望源而迷流 或把葉而亡幹 或割領而補袖 或折枝而帶根〕”이라고 비판했다.

원효의 학문에는 중국의 불교계나 혹은 유학을 다녀왔던 승려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유학승들의 대부분은 어떤 종파나 전공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는 종파적 성격이 강한 중국불교의 영향이기도 했다. 그러나 원효의 학문적 관심은 어느 한 분야에 머물지 않았다. 원효는 좁은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갈대 구멍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격”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봉황새가 청운(靑雲)에 날아 오르면 산악의 나직함을 내려다 볼 수 있듯이, 학자가 『화엄경』의 보문(普門)에 들어서면 그때서야 먼저 배운 것이 편협함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원효는 높이 날아 올라 더 넓은 세계를 조감했던 웅대한 안목의 학자였다. 그의 독창적인 교판(敎判)과 화쟁사상의 전개에는 불교사상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큰 안목이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원효 교학의 독창성은 교상판석(敎相判釋)에서 돋보인다. 교판이란 많은 경론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인데, 종래의 중국 교판가들은 흔히 종파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향이 있었지만, 원효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종래의 잘못을 바로잡고 공평한 판석을 내렸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원효는 100여 부 240여 권의 저서를 남긴 대저술가로 불린다. 약간의 혼란이 있는 저술 목록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90종에 가까운 저술을 했음

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우리 나라뿐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를 통틀어서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저술가였다. 사실 한국불교사상 원효를 능가하는 저술가는 찾기 어렵다. 신라의 의적(義寂)이 25부, 경흥(憬興)이 40여 부, 태현(太賢)이 50여 부의 저술을 남겼지만 원효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중국의 학승도 원효를 따르지 못했다. 지의(智顓)는 30여 부, 법장(法藏)은 50여 부, 백본소주(百本疏主)로 불리는 규기(窺基)의 경우도 50여 부의 저술을 남겼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원효의 많은 저서, 그 대부분이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 전해져 높이 평가되고 많은 영향을 주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십문화쟁론』은 이를 본 이들이 모두 훌륭하다고 했을 정도로, 번역되어 인도에까지 유포된 책이다. 『금강삼매경론』은 신라를 비롯하여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찬양받았던 저서다. 『기신론소』와 『화엄경소』는 법장을 비롯한 당나라 화엄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저서며, 『보살계본지법요기』는 일본의 명혜가 강의했으며, 또한 8세기 초의 일본 지경(智憬)은 『무량수경종요』에 대한 소를 지었다. 만일 『능가경』을 강의하려면 원효의 소(疏)에 의지해야 한다고 의천은 평했고, 또 그는 원효소에 의지해 『금강경』을 강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효의 그 많은 저서 중에서 현재 완본으로 전하는 것은 겨우 13종에 지나지 않고 잔본(殘本)을 합해도 20여 종의 저서가 남아 전하고 있을 뿐이다.

### 3. 대중교화

원효의 대중교화는 그의 학문적 성과나 사상적 깊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 황량하고 거친 세상이라는 들판에서 삶에 지친 사람들의 목정밭을 일구고 가꾸는 일이란 보살행(菩薩行)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원효가 만난 사람은 다양하다. 밭가는 노인과 산골의 몽매한 사람, 그리고 광대, 백정, 술장사 등 시중잡배들과도 어울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거리의 아이들이나 부인들까지도 원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의 익살과

웃음, 노래와 춤 등은 삶에 지친 거리의 사람들에게는 신나는 일이었고, 가끔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으리라. 원효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성이 있음을 믿었고, 비록 지금은 번뇌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 번뇌의 구름 걷힐 날 있음을 알았다. “나는 그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대들은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기에.” 『법화경』의 이 구절을 원효는 주목한 바 있다. 골품제 사회에서의 이와 같은 발언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원효는 “날개 작은 새는 산기슭에 의지하여 형을 기르고, 작은 고기는 여울물에 엮드려 본성을 편안히 한다”고 했다. 이처럼 그는 소승적인 범부의 삶 또한 소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효는 보경(普敬)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 두루 공경한다는 것은 자기를 던져 중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보살정신이 보인다. 민중들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 원효는 “둔하거나 재간이 적은 사람에게에는 하나의 계송을 외워서 항상 생각하게 한다면 마침내 일체의 불법을 두루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간단한 염불을 권했다. 원효는 정도신앙이 범부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말했다. “아미타불의 본원을 따르기만 해도 반드시 그 나라에 왕생해 있으리라”라고. 맑은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본원력(本願力)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는 깨끗한 나라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원효는 교화를 위해 노래를 지어 불렀다. 무애가(無碍歌), 미타증성가(彌陀證性歌) 등이 그것이다. 무애가는 가사가 전하지 않지만, 정도신앙을 노래한 미타증성가는 그 일부가 지금도 전한다. 원효는 어느 날 광대들이 특이한 모양의 조롱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다. 그도 조롱박 모양의 도구를 만들어 무애라고 이름하고는 이를 두드리며 춤추었다. 진실한 마음에 토대하지 않은 무애행은 방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효의 무애행은 화광동진(和光同塵)이었다.

원효의 도력에 얽힌 설화는 여러 가지가 전한다. 당나라의 성선사에 화제가 난 것을 신라 고선사에 있던 원효가 알고 서쪽을 향해 물을 뿜어서 불을 껐다는 설화는 일찍부터 있었다. 그리고 원효가 소반을 던져 당나라

의 천 명 대중을 구했다는 척반구중(擲盤救衆) 설화는 묘향산의 척반대, 경주의 단석산, 양산의 척판암, 천성산의 화엄벌 등 여러 곳에 전한다. 원효가 불을 꺼준 절도 당나라에 있었고, 소반을 던져 구해 준 대중도 당나라 사람들이었다. 원효의 교화와 영향이 멀리 당나라에까지 미쳤음을 설화는 강조해 주고 있다. 신통에 얽힌 많은 설화가 유포된 것은, 그의 위대함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 찬양되고 윤색된 결과다.

#### 4. 원효의 사상

원효 사상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원효를 화엄가(華嚴家), 법상가(法相家), 정토가(淨土家)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모두 한 측면에만 주목한 결과이다.

원효는 일심(一心)에 주목했다. 그가 “일심 이외에 다시 다른 실재는 없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원효의 관심은 심해(心海)를 규명하는 일에 쏠리기도 했다. “일심은 제법의 근본이다. 일심은 물들었거나 깨끗한 모든 법이 의지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중생의 마음은 하나의 큰 바다이다. 혹 물든 행위로 인하여 온갖 혼탁함을 따라 깊이 흐르는가 하면, 또는 깨끗한 인연을 이어받아 떠내려감을 끊고 영원히 고요하기도 하다.” 마음의 바다에 바람이 분다. 헛된 바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바람이 분다. 원효가 말하는 무명망풍(無明妄風)이며, 허풍(虛風)이며 진풍(塵風)이다. 무명이 본심을 덮는 까닭에 망상이 일어난다. 그것은 곧 바람이 되어 마음의 바다를 흔든다. 바다에는 파도가 일고 중생들은 그 파도를 따라 표류한다. 그리하여 부침하는 인생은 고달프다. 갖가지 상황을 따라 온갖 고통을 당한다. 이를 두고 원효는 “무명이 본심을 덮어 망령되게 육도(六道)를 만들고 온갖 고통에 해낸다”고 했다.

중생, 그들은 꿈꾸는 사람들과 같고 술 취한 사람들과 같다. 원효는 이를 두고 “일체의 중생이 먼 옛적부터 무명의 긴 밤중에 들어 망상의 큰 꿈만 꾸다”고 했다. 또한 그는 “술병을 얻은 사람이 혼 혼하게 취하여 깨어나

지 못한다”고도 했다. “모든 중생들이 제 마음의 근원을 모르고 미혹되어 헤매고 있음을 미자(迷子)라고 한다.” 나그네가 고향의 옛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효는 반류기원(反流歸源)이라고 표현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대각(大覺)은 공을 쌓은 뒤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니, 흐름을 따르는 긴 꿈을 단번에 깰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본심(本心)을 얻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원효의 대답은 간단하다. “일(事)마다 현현(玄玄)한 곳에 들어가는 문이요, 곳곳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事事皆爲入玄之門 處處咸是歸源之路)”라고. 그는 또 “열반에 이르는 길은 지극히 가깝고 지극히 멀다. 지극히 먼 까닭에 교(教)를 따라가면 천겁(千劫)을 부지런히 가도 이르지 못하고, 지극히 가깝기 때문에 말을 잊고 찾노라면 지극히 가까운 곳에 고향은 있다(其道至近至遠 由至遠故 隨教逝之 綿歷千劫而不臻 由至近故 忘言尋之 不過一念而自會)”라고 말했다. 원효는 “낭연대오 각요자심(朗然大悟 覺了自心)”이라고 한 바 있다. 스스로의 마음을 환하게 깨달아 아는 일은 밖으로 구하며 헤매어 다닐 일이 못 된다.

원효가 강조하고 있는 일심을 관념론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일심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말한 것이니 관념론이 아니다. “고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보살도를 닦아야 한다.” “거친 세상 건너기 위해서도 공덕을 닦아야 한다.” “근원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만행(萬行)이 갖추어져야 한다.”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삼업(三業)으로 보살도를 닦고 만행을 구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삼업의 바탕에는 일심이 있다.

원효가 살았던 7세기는 다툼의 시대였다. 한반도는 전쟁의 와중에 휩싸여 있었고 사람들은 신분으로 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원효는 화해의 길을 모색했다. 곧 화쟁사상(和諍思想)이 그것이다. 원효는 화쟁사상을 전개함으로써 “백가(百家)의 이쟁(異諍)을 화합하여 지극히 공평한 불의(佛意)를 얻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논쟁은 집착에서 생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안경으로 보고, 자신의 잣대로 재며, 자기 중심으로 인식하려 든다. 대상을 아전인수격으로 곡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해야 한다. 마음을 비우기란 참으로 어렵지

만, “무념(無念)을 얻으면 상대방과 더불어 평등해진다.” 편협한 생각에 얽매어 일방적으로 한 면만을 고집하거나 한 가지 입장만을 절대화하고 독단화하면, 이 경우 문제가 생긴다. 세상의 이치는 하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로 다르기만 한 것도 아니다. 곧 비일비이(非一非異)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방면이 다 의미가 있고, 다르지 않기에 그 어느 길로도 행복의 동산에 이를 수 있다(由非一故 能堂諸門 由非異故 諸門一味).” “일체의 타의(他義)가 불교의 뜻이요, 백가의 설이 옳지 않음이 없으며, 팔만 법문이 모두 이치에 맞는 것이다(一切他義 咸是佛意 百家之說 無所不是 八萬法門 皆可入理).” 이는 원효의 가르침이다.

언쟁에는 말이 문제다. 말은 본래부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러기에 손가락은 보지 말고 달을 보면 그만이다(我寄言說 以示絕言之法 如寄手指 以示離指之月). 말꼬리를 잡는 태도는 옳지 않다.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살려서 듣는다면 허용하지 못할 어떤 것도 없다(如言而取 所說皆非 得意而談 所說皆是). 말꼬리를 잡는 태도는 손가락 끝만 보고 달이 아니라고 책망하는 꼴이다. 이상이 말에 대한 원효의 생각이다.

원효의 화쟁 방법에는 전개와 통합이 자유롭고 긍정과 부정에 구애됨이 없었다. 어떤 일에도 “산을 보지 못한 채 골짜기에서 헤매거나 나무를 버리고 숲 속으로 달려가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개한다고 번거로워지는 것도, 합친다고 좁아지는 것도 아니다(開而不繁 合而不狹).” 이 때문에 통합과 전개는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긍정한다고 얻는 것이 없고, 논파한다고 잃을 것도 없다.” 긍정과 부정에 구애받지 않아야 화쟁의 논리는 가능하다. 사람 사는 세상에 인정(人情)과 도리(道理)가 상충할 때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같지도 않게(非同) 다르지도 않게(非異) 말하라”고 원효는 가르쳐 준다. 상대와 다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정과 어긋나지 않고, 같지 않음으로써 도리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불교학 전반에 적용되는 것일 뿐 아니라, 세상사 모두에 의미 있는 것이다. 그는 여러 경론에서 설하고 있는 상이한 교리상의 문제와 여러 논사들이 전개해 온 논쟁들, 그리고 대승과 소승의 우열,

신·구불교의 대립 등을 화쟁하였다. 원효의 화쟁은 세속적인 가치와 종교적인 가치 사이의 갈등과 마찰도 화해시키는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열반실제(涅槃實際)와 세간제(世間際)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출가와 환속을 자유롭게 했던 자신의 행적으로도 이를 증명했던 셈이다.

인간은 온갖 사슬과 속박으로부터 마땅히 해방되어야 한다. 원효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이론적으로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이를 구현했다. 이 때문에 그의 무애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효는 일정한 범위나 틀 속에 안주하기를 거부했다. 그가 ‘유방외(遊方外)’, ‘초출방외(超出方外)’ 등의 표현을 즐겨 썼던 것도, 무애의 자유인으로 행동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 원효는 『화엄경』의 이 계승을 재발견했고, 이로부터 무애라는 용어를 취했다. 무애무의 춤사위에는 강한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두 소매를 흔드는 것은 이장(二障)을 끊어야 한다는 손짓이었고, 다리를 세 번 들었다 놓는 것은 삼계(三界)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발짓이었으며, 몸을 움츠린 것은 사람을 따른다는 시늉이었고, 그리고 등을 굽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섭한다는 표현이었다. 온갖 장애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의 두 가지 장애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다. 인간을 구속하고 결박하는 두 가지 장애와 그것으로부터의 초극에 이르는 길을 원효는 『이장의(二障義)』를 통해서 규명했다. 원효는 해방자였고 자유인이었다. 불교로부터도, 승려라는 형색으로부터도, 지식으로부터도, 명예로부터도, 계율로부터도 그는 언제나 자유로웠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 5. 불교사에 미친 영향

“어둡고 긴 밤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 원효는 스스로 그 등불이기를 염원했다. “널리 법계를 위하여 하나의 등불 밝히나니, 이 등불 전하여 사방을 두루 비추소서”라고. 7세기 신라에서 원효가 밝힌 등불과 인생의 불꽃

은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 등지로 퍼지며 수많은 가슴을 밝혔고, 지금도 꺼지지 않은 무진등(無盡燈)이다.

원효의 교학은 신라의 경흥(憬興), 도륜(道倫), 현웅(玄隆), 태현(太賢), 견등(見登), 표원(表員)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 분황사, 고선사, 흥륜사 등에는 원효의 소상(塑像)이 봉안되어 있었다. 고선사에 원효의 행적을 기리는 서당화상비가 세워진 것은 9세기 초였고, 성도한 곳인 직산의 옛 무덤은 9세기 중엽에 기념할 만한 유적지로 인식되었으며, 10세기 초에는 원효가 머물렀던 향성산 내의 한 절터도 성적(聖跡)으로 주목을 받았다. 신라에서는 원효를 구룡대사(丘龍大師), 진나후신(陳那後身), 만인지적(萬人之敵) 등으로 존칭하기도 했다. 의천(1055~1101)은 원효의 저서를 수집·간행하고 이를 송나라와 요나라에 유포하기도 했다. 의천은 보살(菩薩), 성사(聖師) 등의 존칭을 사용하면서 그의 위대성을 강조했고, 원효 교학의 의의를 “고급의 잘못을 바로잡고 백가의 서로 다른 논쟁을 화합시킨 것”으로 천명했다. 숙종 5년(1101)에는 국가에서 원효를 동방의 성인이라고 하면서 화쟁국사(和諍國師)의 호를 추증하고 분황사에 비를 세우도록 했다. 고려에서는 흔히 원효를 대성(大聖), 성사(聖師), 효성(曉聖) 등으로 존칭했다. 조선시대에도 원효는 잊혀지지 않았지만, 구전설화에 의해 신이(神異)한 도승(道僧) 정도로 인식되었다. 고선사와 분황사에 전하던 원효의 비는 깨어졌고, 여러 유적지는 잊혀져 갔으며, 많은 명저들은 읽는 이 없이 흩어지고, 겨우 한두 편이 간행되었을 뿐이다.

우리 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원효의 명성과 영향은 지속되었다. 의천은 원효의 명성이 중국과 인도에까지 떨쳤다고 했다. 당나라에 왔던 진나(陳那)의 문도들에 의해 원효의 『십문화쟁론』이 번역되어 천축에까지 전해졌다. 『금강삼매경론』은 중국에서 소(疏)가 논(論)으로 존칭되었다는 설이 있고, 『화엄경소』는 당나라 화엄학자들의 주목을 크게 받았으며, 『기신론소』는 해동소(海東疏)로 불리기도 했다. 당나라 학자들의 저서에는 원효의 학설을 인증(引證)한 예가 많다.

일본 불교에 끼친 원효의 영향은 8세기 초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8세기 일본에서 서사된 원효의 저서는 47종이나 된다. 많은 학승들이 원효의 저서를 읽고 그 설을 인용했다. 12~13세기경 일본에는 원효의 전기인 『원효화상연기(元曉和上緣起)』와 『원효사초(元曉事抄)』가 유통되고 있었다. 8세기 중반 이후부터 일본에서는 원효를 구룡(丘龍), 혹은 구룡대사로 존칭한 예가 적지 않다. 물론 구룡은 청구의 용이라는 의미다. 명혜(明惠 : 1173~1232)는 원효와 의상을 흠모했다. 그가 성인(成忍)에게 부탁하여 그린 『화엄연기(華嚴緣起)』 6권은 원효와 의상의 생애를 그 전체 내용으로 한 것으로 현재 일본의 국보이다.

## 6. 원효사상의 현대적 의의

원효의 사상에는 시대와 민족과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 보편성이 있다. 그의 사상은 신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계인 동아시아 전체에 통하는 보편사상이었다. 종교적으로도 불교에만 한정된 사상은 아니다. 비록 주제와 용어 등이 불교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해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능히 불교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의 사상에는 오늘의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성과 참신성이 있다. 그가 파헤쳐 보여 주고 있는 마음의 세계와 화쟁의 논리, 그리고 자유인의 몸짓 등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선다. 그의 가르침은 수행자에게도, 세속인에게도, 불교인에게도, 타종교인에게도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원효는 아직 채굴이 다 끝나지 않은 광맥이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정리, 현존 저서의 충실한 역주, 현대의 언어로 다시 읽고 쓰는 해석학적인 접근 등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불교문화사에 우뚝 솟은 봉우리인 원효, 그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자존심이고 긍지며 자랑이다. 그리고 젊은 구도자가 도전해 볼 만한 높은 산이다.

## 〈참고문헌〉

- 『新羅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1991.  
『歷史로 읽는 元曉』, 高麗院, 1994.  
『한국불교사 산책』, 우리출판사, 1995.  
『韓國의 茶詩』, 민족사, 1997.  
『新羅의 思想과 文化』, 一志社, 1999.  
『元曉 研究』, 民族社, 2000.